

한국가족문화의 재고

- 친밀성의 부재와 허약한 가족관계

A Revisit to Korean Family Culture



김혜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고, 여성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면서 주요한 행위규범의 하나인 가족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개인의 욕망과 행복 추구가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면서 이제까지 개인의 애정관계를 지배해온 전통이나 규율, 행위지침 등은 점차 무력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나 규범과 같은 외재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선택되는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면서 가족구성에서의 개인 선택권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문화에서는 선택의 논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고, 결혼 및 가족관계가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긴장이 유발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족의 구조변화로 가족의 범주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부부관계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부부관계의 핵심은 여전히 자녀 양육과 바깥일이라는 이분화된 구도 속에서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성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헌신, 자녀의 학업과 진로 지원을 위한 가족차원의 전략과 투자는 계층의 차이를 넘어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이러한 현실은 강한 가족응집력에도 불구하고 친밀성과 소통이라는 관계적 측면보다는 가족의 계급 재생산에 기형적으로 집착하는 경직된 '내가족 중심주의', 혹은 도구적인 가족주의의 유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족구성 선택권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현대 가족은 가족구성의 주된 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개인의 욕구와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의 관계적 친밀성이나 소통은 가족안녕에 수반되는 파생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가족구성의 고유한 목적이자 가족생활의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가족문화로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가족의 구조변동과 새로운 도전

90년대 후반 이후 촉발된 한국의 가족논쟁은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뜨거운 사회쟁점이 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IMF의 경제위기로 유례없는 대량 실직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출,

별거, 이혼 등의 가족해체적 증후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족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보다는 가족위기담론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 변화는 무엇보다 신비한 가족이데올로기가 무장 해제되는 탈주술화의 과정으로서 기성의 가족가와 구성 원리의 해체를 통해 가족은 무

엇이었으며 무엇이여야 하는가를 되묻는 구조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가족관계와 행동을 인도해온 가족규범은 성·세대·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며, 가족을 구성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은 개인이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하나일 뿐 더 이상 도덕적 규범이 작동되는 당위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이혼율과 저출산의 경향 역시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불평등한 공·사적 관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선택적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¹⁾.

특히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주요한 문화적 트렌드로 수용되고 여성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면서 기성의 행위 및 사유양식의 원형으로 인식되어온 가족주의와 집합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개인의 욕망과 행복의 추구가 정당한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이제까지 개인의 애정관계를 지배해온 전통이나 규율, 행위지침 등이 점차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문화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면서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의 변화를 촉발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유

대방식의 구축과 자기 규정적인 의미부여의 과정을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스스로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구성에 있어 경제적인 이유나 의무, 규범 등과 같은 외재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고 기존 가족관계로부터의 이탈과 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은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선택을 위한 스스로의 논거를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선택과정으로 변화한 현대의 결혼 및 가족관계는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요구하는 삶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²⁾. 즉 부부를 결합시키는 외부적 지원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두 개인은 스스로 사랑의 토대를 구축하는 규칙과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하고, 이런 점에서 현재의 변화는 가족관계와 내용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가족의 문화변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사회나 개인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가족의 안녕은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되어 왔다. 가족원의 욕구 보다는 가족 안정성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문화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최소단위로서 가족과 가족이 아닌 범주의 경계가 분명하고, 우리 가족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간

1) 김혜영(2003),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호
 2) 백, 백-계른사임(1990), 『사랑은 지독한 혼란』(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역), 새물결 1999:21~33

극이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게 된 오늘의 가족은 가족구성 주된 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개인의 욕구와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에서의 친밀성과 소통은 집단으로서의 가족안녕에 수반되는 파생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가족의 고유한 목적이자 가족생활의 중요한 콘텐츠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족구성 목적이자 관계의 친밀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가족문화를 개념화하고, 관계적 측면에서 한국가족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가족은 가족의 범주가 핵가족으로 축소되면서 부부관계의 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부관계의 핵심에는 자녀양육과 바깥일이라는 이분화된 구도 속에서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성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

시중산층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헌신, 그리고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차원의 전략과 부모의 과감한 희생과 투자는 계층의 차이를 넘어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³⁾.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가족의 강한 응집력에도 불구하고 친밀성과 소통이라는 관계적 측면보다는 가족의 계급재생산에 기형적으로 집착하는 경직된 ‘내 가족 중심주의’, 혹은 ‘도구적 가족주의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왜 친밀성이 부각되는지를 살펴보고, 친밀성의 복원을 위한 소통 기제로서 가족문화를 재규정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핵심 기제로 부각된 관계의 친밀성이란 측면에서 한국의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 끝으로는 친밀성과 소통적 관계를 복원하는 새로운 가족문화의 방향과 의미를 덧붙이고자 한다.

2. 개인화된 사회, 친밀성, 그리고 가족문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사랑, 가족, 일,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많은 갈등과 직면하고 있다. 특히 남성 1인 생계부양자구조가 아닌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경험하는 갈등과 마찰은 때로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여성들은 가정생활이나 어린 자녀를 위해 기꺼이 취업을 유보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해 왔으며, 아직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여성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불문하여 자신의 경력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점차 가정생활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전문가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질 쌓기와 경력관리, 개인의 욕구충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 전개되는 남녀관계란 통념적인 남녀관계 그 이상의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남녀의 교섭대상은 사랑, 섹스, 자녀, 결혼 그리고 가사노동의 분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경제, 정치력, 전문직과 불평등한 사회상황까지도 포함된 그 이상의 무엇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녀의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갈등상황의 상존을 내포하는 것이다⁵⁾. 이러한 현실은 결혼 상담산업, 가정법원, 결혼자조집단의 결성과 이혼율의 상승 등에서 일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깨지기 쉬운” 듯 불안정해지고 이혼이 우리 일상의 다반사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출산 회피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 요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⁶⁾.

근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낭만적 사랑은 핵가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친족관계와 분리된 개인들의 결합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을 결합시킴으로써 남녀의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 그리고 모성이 상호 결합되고,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새로운 마법에 걸려버린 근대적 사랑은 성역할 구조에 기반한 상호구속성으로 인해 관계의 평등성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특히 남녀의 성별분업으로 인해 핵가족 구조 내에 고

3)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사교육비의 부담과 이것의 계층적 격차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학교는 연간 600만원(월 40만원~60만원), 고등학교는 연간 720만원(월 50~70만원), 대학교는 연간 1500만원(학교마다 다르지만 기타 부대비용 포함하여 4년간 대략 1억 원 내외)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14조 6천억 원으로 세계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이러한 사교육비가 가구소득의 10~19%에 달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34.9%로 가장 높으며, 20~29%로 달한다는 응답이 2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장혜경, 김혜영 외(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에서 재인용)

4) 한국가족의 주요한 이념이 되어온 전통적 가족주의에 관한 최근의 논의 가운데 일부는 가족주의를 둘러싼 도덕적 논쟁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가족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한 가지 특징은 현대사회의 획일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이나 구성원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가족전략단위로서의 가족중심성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중심주의는 여전히 가족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족주의를 구성하는 여타의 특성들은 사회변화와 함께 현대적 가치로 대체되거나 희미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유지, 성장을 위한 자원마련 및 가족원의 보호기제로서 가족주의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가족의 도구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사회변동을 통해 가족은 경쟁의 기본단위이자 공리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주요한 전략단위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박통희(2004),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과 문화』 16집 2호:93~125; 김현옥(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 『가족과 문화』 상계서:3~30; 양옥경, 김혜영(2001), “가족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본 가족정책의 방향”, 상계서 13집 2호:29~55)

5) 백과 백-게른사임(1990), 상계서: 248~254

6) A. 기든스(2001), 『현대사회학』(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외 역), 을유문화사, 2003:200

착된 여성들과 생계부양자로서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남성과의 불균형은 남녀의 순수한 관계를 불구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⁷⁾.

그러나 정보사회에 들어와서는 성의 경계가 더욱 유연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이 증가하면서 근대성으로 불구화된 남녀관계는 이제 순수한 관계적 속성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순수한 남녀관계는 각 개인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는 한에서만 지속될 뿐,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사람만의 의지에 의해서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관계이다. 관계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에서는 사랑이나 결혼을 선택한 개인 스스로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그 관계는 단절되기 십상이다⁸⁾. 따라서 순수한 남녀관계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사랑을 위해 결혼하고, 사랑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파트너와의 깊은 유대를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 그리고 시장에서의 좌절감과 새로운 욕망으로 인한 갈등의 순환적 경험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끈임 없는 추구하고 함께 남녀관계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다소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즉 기든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 결속으로부터의 해방은 개인에게 성찰성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안전감의 토대인 확실성의 근원마저도 제거해 버린 것이다⁹⁾.

현대의 결혼과 가족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부여와 평가가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남녀 및 가족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 할수록 사회가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어 인간관계가 물화되면 될수록 역할적이게도 사랑은 더욱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사랑만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남들과 연계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자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관계로서의 결혼이나 애정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관계에서의 만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사적 생활을 기획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획의 목표는 바로 관계의 친밀성과 소통에 대한 확인이다.

근대사회에서 '친밀성'은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어 왔다. 친족 및 지역공동체가 개인의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약화된 자리에 원자화된 개인이 등장하고 개인적 주체로서 자아가 확대되면서 친밀성은 개인유대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인한 입노동자화와 도시화, 노동환경 등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인격적이고 사적인 관계와 비인격적이고 공적 관계를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우리 자

신의 내면적 자아와 일·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역할사이에는 긴장과 괴리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자아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경험하는 영역은 오로지 사생활 내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친밀한 관계'의 필요성을 확대시키게 되었고, 남녀 및 부부관계는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원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과정 또한 '표면 영역'으로부터 사생활 영역을 규정짓는 '이면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¹⁰⁾.

또한 친밀성을 유지하고 확인하는 주요 기제는 상호 소통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의 만족도와 평등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있어 소통은 가족구성원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인 것이다.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이해하며 관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소통의 불균형은 가족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만족스러운 가족관계일수록 언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자기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비언어적 기술을 잘 사용

하는 등 효과적인 소통기술을 사용하고 있다¹¹⁾.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과묵함이나 표현의 최소화가 미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애정적 표현이나 감정에 대한 세세한 표현은 다변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평등성과 친밀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남녀 및 가족관계에서 남성의 적응을 더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순수한 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 마련보다는 기성의 질서와 권위관계에 의존하게 만들게 된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가족구성의 방식이 과거와 달리 혈연과의 느슨한 연관성만을 가지며, 결혼과 가족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와 소통방식으로서 결혼과 가족은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남녀관계는 물론 부·모자녀의 친밀성은 상호 평등한 맥락에서 자아와 타자가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며, 바로 그런 연유에서 관계의 평등성은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초래하는 본질적 요인 동시에 의사소통의 가능성이기도 하다¹²⁾. 따라서 새로운 가족문화는 가족의 형태와 유대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의 평등성과 친밀성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누구와 어떻게 친밀성을 맺을 것인가를 스

7) A. 기든스(1992),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1996:92~93.

8) A. 기든스(1992), 상계서:111

9) 백과 백-게른사임(1990); A. 기든스(1992)

10) Lasch, 1997; 함인희(2001), "배우자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집 2호:3~28.

11) Satir, 1972; 최선희, 장신재(2002), 『가족과 문화』, 14집 2호:33에서 재인용.

12) A. 기든스(1992); 마경희, 이은아(2006), "새로운 가족문화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가족에서 공동체로", 『가족문화정책 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 8에서 재인용.

스로 결정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족끼리의 친밀성과 소통을 확인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가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지만 여전히 특별한 관계와 유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친밀성을 획득하고 소통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 문화의 개념은 가족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희구하는 순수한 관계를 가족생활에서 실현시키는 방법이자 메커니즘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가족생활의 콘텐츠이자 소통방식으로 규정되는 가족문화는 공유된 의식과 규범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재생산되는 유형화된 행위라는 근대적 개념을 넘어 나와 동일하지 않은 타자를 친밀성이라는 관계를 통해 내어 어떻게 수용하고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유되는 친밀성은 무엇이며, 따로 또 함께 하는 가족의 삶과 여가는 어떻게 가능하고, '나'라고 하는 개체의 성장과 관계로서의 가족 발전은 무엇인가를 끈임 없이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과거와 같이 삶의 방식과 가치유형을 제공해주는 화석화된 행위지침서가 아니라 가족구성을 소망하는 개인들이 스

스로의 합당한 논리(rationale)를 발견해야 하는 과정이며, 특별한 유대 욕구를 실현시키는 방식을 터득해 가는 자조(self-help)의 과정인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들의 노하우인 것이다.

3. 가족이념의 과잉과 허약한 가족관계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삶과 사고유형을 지배해 온 가족주의는 가족의 의미와 구성에 있어 개인보다 '우리'를 강조하고, '우리'의 최소단위로서 혈연중심의 가족공동체를 중요시해 왔기 때문에 '집'은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공간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정서적, 이념적 토대로 기능해 왔다¹³⁾. 그러나 가족주의는 부모와 자식 혹은 형과 아우의 서열적 관계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가족중심적인 사고와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추상적이고 집합적 수준에서의 가족복리가 강조되고, 가족의 안녕을 위한 개인의 헌신을 당연시하는 가족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가족은 최근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의 경계가 분명하고 가족에 대한 기대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구속력은 서구사회보다 높지만¹⁴⁾, 가족원의 민주적인 소통방식과 친밀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90년대 이후 한국가족은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분명한 전환기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족주의에 의존해온 한국가족의 허약성은 IMF라는 경제위기를 통해 이미 세간에 노출된 바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가족이 불안정해지거나 해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위기는 가족생활을 위협하는 주요인입에는 틀림없지만, 가족원의 신뢰와 친밀성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주의의 팽창으로 가족경제의 기반 약화가 예측되는 시점이고 보면, 가족성원의 유대와 친밀성은 가족 안정성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한국가족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개별 가족원의 친밀성과 소통보다는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최적의 전략단위로 기능하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서적 유대와 친밀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삶의 단위로 가족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적 특

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급속한 사회변동과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재생산 자체가 가족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고, 과밀한 경쟁을 통과시켜야 할 경험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가족은 경쟁의 파고를 함께 넘는 최적의 공존단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통의 목표와 신념,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강한 소속감으로 유지되는 근대적 가족가치만으로는 다양한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특히나 평등하지만 충분히 친밀한 부부관계와 자녀의 성장을 삶의 과정으로 지켜보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경쟁적 사회에서 내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전략단위로 기능하는 오늘의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목표와 수단이 전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가족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함축하고 있듯이 한국가족은 내부적인 자기검열과 혁명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일시에 근거한 기능적 확산보다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를 수용하고 배려하려는 상호의 노력과 헌신으로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1) 가족내 불균형한 역할구조와 부부관계

사랑에 의한 결혼이 규범화됨에 따라 한국의

13)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4) 이는 가족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부모에 대한 의식과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이상적인 규범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모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직접적인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실태조사결과에서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성을 불문하고 70-80%가 가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지만, 정작 가족원 가운데 부모부양의 책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자식 가

운데 능력 있는 자녀(39.1%), 부모자신(2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2006), 가족실태조사).

15) 개인의 사랑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이 가족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감정변화에 의해 가족의 토대가 쉽게 동요된다는 이율배반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A. Giddens, 1996; U.Beck E. Beck-Gernsheim, 1999).

가족은 친족공동체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가족의 일차적인 범주가 핵가족으로 제한되면서 부부관계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사적 친밀성에 근거한 부부관계 역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관계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와 성적 친밀성은 사회변동의 맥락과 조응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남녀관계에 의해 부부관계의 지형이 변화하기도 하고, 부부관계를 통해 성 질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부관계의 주요한 쟁점은 가족 내 역할분담을 둘러싼 남녀의 갈등과 성적 친밀성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려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근대 이후 더욱 가시화되어온 가족 내 성역할 구조는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보화 기술로 인해 시장의 영역에서 남녀의 역할구분이 갖는 정당성이 감소됨에 따라 가족에서의 성역할 구분은 점차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여성이 전담해 온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여부는 부부관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녀양육과 집안 일 등의 돌봄 노동을 남녀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가족생활과 남녀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가족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해 온 근대

의 가정 중심성(domesticity)에서 벗어나 평등한 역할분배와 책임의 공유가 일상화되는 생활방식은 현대가족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 노동은 병든 가족원을 간호하는 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가족 내 연로한 노인을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상대방의 심리적 안정을 관장하거나 정서적 유대를 비롯하여 청소나 세탁, 자녀양육과 같은 구체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는 노동의 영역이다¹⁶⁾. 그러나 여성이 전담해 온 돌봄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 되어왔으며, 이러한 평가절하는 곧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전적으로 수행해 온 돌봄 노동의 공백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돌봄 노동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화할 것인가는 선진국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이중 부담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화하는 남성의 지체"로 인한 부부갈등이 증가하고 있다.¹⁷⁾ 실제로 전국가족실태조사¹⁸⁾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95%이상임에 비해 남편들의 가사참여율은 30% 미만이며 식사준비와 설거지와 같은 일상적 가사노동의 참여는 아내 참여회수의 1/16~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들의 자녀양육과정의 참여는 매우 미흡하여 아내와 평등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물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홀벌이 남편에 비해 참여의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역시 매우 분담의 수준에 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낮다. 더욱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의 경우에도 이를 돌봐주는 주 돌봄자는 아내이거나 어머니, 며느리 혹은 미혼의 딸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 2005: 179~181).

흥미로운 점은 동일 조사에서 나타난 부부간 의사결정방식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 사안에 대해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아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이 부부관계에 보편적인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취업이나 직장이동에 관해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지만 '아내가 결정한다'보다는 오히려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⁹⁾.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보여주

는 지표에서 나타난 이러한 모순적 결과는 전통적 성역할이 가족 내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가족에서 배우자의 취업의 문제는 부부공동의 결정 사안이지만, 남편과 달리 아내의 취업은 돌봄 노동의 공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편의 양해와 배려가 필요한 사항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오늘날 한국의 부부는 평등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인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사결정에 관한 한 민주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 성역할 구분이 뚜렷하고 역할의 불균형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정에서의 부부 역할분담이 아내에게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51.2%²⁰⁾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방식만을 가지고 부부관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부관계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부부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부부가 자신들의 관계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부부만족도의 항목별 차이와 성별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부부만족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 평등성

16) Duncomb and Marsden, 1993:기든스, 2003:198에서 재인용.

17) 이재경, "공· 사적 영역의 변화와 '가족' 을 넘어서는 가족정책", 「여성연구」68호: 139.

18) 2005년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수행한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 (2005),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를 참조하라.

19) 남편의 취업이나 직장이동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 한다'는 응답이 54.6%이고 '남편이 결정 한다'는 응답이 19.8%인데 비해, 아내의 취업이나 직장이동에 관해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 한다'는 응답이 55.9%이고 '남편이 결정 한다'가 23.9%, '아내가 결정하는 편'이라는 답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 2005:170).

20) 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 2005.

과 배우자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남편과 아내의 만족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²¹⁾. 물론 부부만족의 모든 항목에서 남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부부관계의 평등성이나 배우자의 자신에 대한 평가,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챙겨준다는 항목의 경우 아내와 남편 만족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통의 부부관계가 극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는 적지만, 남편과 아내의 역할 긴장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긴장을 인지하고 체감하는 주체는 아내일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족을 선택하고 유대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의 노력과 평등한 권리가 수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부부가 자녀양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함께 보살핌으로써 서로의 생활세계와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가족의 안팎에서 새로운 욕망이 끈임 없이 유포되고 가족이외의 관계에서도 능히 사적 친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이고 보면 단순한 기능적 의존에 근거한 부부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시장의 압력과 소비의 위력이 거세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참여가 남녀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며, 효과적인 가족재생산을 위해 여성이 가정에 고착되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바야흐로 역할분담에 기초한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체로서 가정과 사회를 넘나들면서, 평등하지만 가족 내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서적 친밀성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다.

2) 부모·자녀관계의 불균형: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핵가족 문화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고 평가되는 주된 이유는 부모자녀의 강한 응집력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에 있다. 즉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독특한 한국 중산층 가족의 모습으로서 부부중심의 서구 핵가족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부모자녀관계는 주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통한 문화자본의 획득이라는 도구적 가치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²²⁾. 특히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서라면 부부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유대를 위한 정서적 관계 또한 기꺼이 양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본질적인 부모자녀관계보다는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발견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학업과 진로이고 이들의 평일 저녁시간은 주로 사설학원이나 과외 등의

보충수업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평일 여가시간 또한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으로 할애되고 있다. 물론 청소년기 자녀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학업성적에 대한 가족압력이 매우 높고, 발달단계상 부모보다는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점차 낮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이 동시에 진행되고, 성인기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시기이자 입시경쟁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유대를 체감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족시간이나 가족활동은 매우 중요하다²³⁾.

그러나 한국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족시간을 'TV 시청'으로 소일하는²⁴⁾ 수동적인 여가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주된 가족의 여가형태를 살펴보면, 가족원이 모이는 저녁시간이나 휴일조차 각기 TV 시청, 컴퓨터 게임, 가사노동 등 각기

따로 개별적으로 몰입하는 여가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2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식사의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도 "거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대 청소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²⁵⁾.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 자녀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한 달에 몇 번이나 운동·산책을 하는가 혹은 영화·연극을 관람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모 가운데 누구와도 운동이나 영화관람 등을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²⁶⁾.

이같이 청소년 자녀들은 가족과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공유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청소년 자녀와 그들 부모의 의사소통 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소통관계가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

23)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지 않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답한 것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41.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학업 및 기타)이 너무 바빠서"가 15.4%,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적인 문제였는데 특히 저녁시간을 사설학원, 과외, 보충수업에 소비하는 비율이 30.5%, 컴퓨터 게임에 소비하는 비율이 1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2005).
 24) 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한국가족의 여가형태는 무엇보다, 조사대상 가구원 5,348명 중 평일에 가족과 함께(최소 2명 이상)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인 사람이 57.8%로 가장 높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평일 저녁시간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5,348명 가운데 49.9%가 주로 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TV 시청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응답이 52.8%에 달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2005).
 25) 평일 가족원 2인 이상이 함께 하는 저녁식사가 거의 없다는 응답은 10대 8.7%, 20대는 7.6%, 30대 3.7%, 40대는 5.5%, 50대는 4.8%, 60대는 2.1%, 70대 이상은 1.7%로 나타났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2005).
 26) 아버지와 한 달에 한 번도 산책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청소년은 82.3%, 어머니와 산책·운동을 하지 않은 비율은 74.2%이며, 아버지와 영화,연극,음악회 등을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3.5%, 어머니와 한 번도 문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9%에 달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 2005).

21) 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 2005.

22) 윤택림(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권 2호.

니는 자녀들이 허물없이 고민이나 장래에 대해 상의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만족스럽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는 부족하다는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 아버지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또한 자녀가 고민을 상담하는 주된 상대는 친구, 어머니의 순이지만, 아버지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3.9%에 불과해 청소년기 자녀의 생활세계에 있어 아버지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가족의 모습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생계부양자, 자녀훈육자로서의 부모역할만 강조된 나머지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친밀한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녀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 기울여주는 소통적 관계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와 일하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이나 여가가 부족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자녀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흔히 부모의 관점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시적 언어와 훈육을 위한 일방적인 관심의 표현을 자녀와의 소통으로 이해하지만, 정작 자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행동을 체크하고 평가하는 위계적인 언어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을 공유하려

는 노력이 수반되면서 상호의 관심사를 교환하는 것이 소통적 관계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부모자녀관계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노동세계에서의 성취만을 강조하는 삶은 결국 반쪽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과도한 조직 몰입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능력과는 무관하게 입시와 취업경쟁에 매몰됨으로써 정작 가족끼리의 원만한 소통과 친밀한 유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가족은 경쟁을 준비하고 그러한 경쟁체제에서 오는 긴장감을 해소하는 보조적, 수단적 장소로 전략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정작 현대의 가족은 이러한 경쟁을 준비하기에도 역부족이며,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자기완충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한 기능적 장애의 큰 원인은 바로 가족관계의 친밀성 부재와 왜곡된 소통구조에 기인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4. 결어 및 제언

젊은 층의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대중적 키워드로 인식되고,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확장되

면서 이제까지 행위규범의 원형으로 인식되어 온 가족주의의 우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현재의 가족 내·외적 변화는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욕구충족을 위한 개인권이 점차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가족문화는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구성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좌우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하나의 목표를 수행하는 질서정연한 조직이 아니라 개별가족원의 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화가능한 관계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각자의 가치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의를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가족원은 상호 소통과 공유를 지향하지만, 동시에 개별성원의 다양한 목표와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철저히 개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기성의 집합적 가치와 개인권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인 동시에 가족이 함께 그리고 개별자로서 각기 따로의 삶을 수용하는 성숙된 가족문화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핵가족은 서구와 달리 부부중심보다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부각되어 왔지만, 주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지도를 통한 가족지위의 재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자기모순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젠더질서에 비해 가족 내 역할구조는 여전히 더디게 변화하는 가족 지체로 부부갈등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개

인의 선택권이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상호 평등성에 기반한 소통적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역할 공유가 보다 수월해지고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서의 성별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만으로 부부관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상이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친밀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소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가족은 부부와 부모자녀간의 친밀성과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문화의 기제가 필요하고, 이는 부부간, 그리고 부 또는 모와 자녀, 혹은 자녀끼리의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가족내적 관심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 공동체, 사회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재생산을 위한 가족단위의 투자가 중시되고 자녀의 문화 자본을 위해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경쟁구조에 적합하지 않는 여타 가족의 삶을 백안시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가족문화는 혈연적 귀속주의에 의한 기계적 유대에서 벗어나 끈임 없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새로운 유대방식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소통적 공유라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구성해야 하는 오늘 우리 가

27)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청소년의 60.1% 가량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 비해 어머니와는 71.1%가 대화가 충분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버지들은 65.8%가 자녀와 허물없이 대화한다고 응답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외, 2005).

족의 사명은 비단 가족을 구성하는 개체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공동체 수준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동시적 과제인 것이다. 목표지향적인 삶에서 과정 지향적인 삶, 타인과의 경쟁에서 생존하는 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타자와 이웃, 공동체와 함께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몸으로 체현하려는 고민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을 구성하

는 개인들의 노력 역시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남성과 여성을 넘어 사회전체가 보살핌을 공유하고, 개인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의 경계가 유연해져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백리](#)

